

“장원급제요~” 60여명 선비 ‘과거시험’

●본보·광주유학대학 주관 ‘광주고을 향시’ 재현

유림회관서 유복·유진 갖춘 제현들 2개 분야 응시

“문화유산 전승·발전 계기...일회성 아닌 지속되길”

조선시대 관리 등용을 위해 실시했던 ‘과거시험’이 광주유림회관에서 재현됐다.

광주유학대학과 광주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재)한국학중앙연구원, (재)광주시향교재단이 후원한 ‘광주향교 과거시험’은 지난 9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소재 유림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과거시험에 응시한 광주·전남 유림제현 60명과 최흥렬 광주향교 전교, 강대욱 광주향교 전 전교, 이동재 광주향교재단 이사장, 안규춘 광주시본부 유도회장, 이현호 광주향교 전 모성회장 등 모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 선비의 필수의복인 유복과 유건을 갖춘 채 치러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대성전 배례, 개회사 및 축사, 향시 진행, 채점 결과 발표 및 시상,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과거시험 재현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특구 광주 남구의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졌다.

오수열 광주유학대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서 깊은 광주향교에서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과거시험을 재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첫걸음이 인재 선발이라고 본 유학 정신에 따라 실시된 과거

제도는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되지만, 과거의 뿌리인 유학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화이자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지 않는 지역에 자존감이 남을 수 없다”며 “광주가 첨단 산업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진 축사에서 이동재 광주향교재단 이사장은 “과거시험은 미래지향적

으로 학술적 연구를 탐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 민족정신과 혼이 담긴 역사이자 체험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실시됨으로써 시대적 측면에서 성찰하고 인재 등용을 공정과 정의 실현의 계기로 삼는다면 더 큰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행사의 지속 발전 필요성을 전했다.

이날 향시(과거시험)는 ‘국가경영方略’과 ‘한시’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향시(과거시험)는 ‘국가경영方略’과 ‘한시’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판으로는 장성 필암서원 선비학원의 박래호 원장 등 유학자들이 참석했다.

향시의 시제 및 압운은 현장에서 제시됐다. 국가경영方略은 ‘우리나라를 행복한 민주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략을 유림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를 주제로, 한시는 ‘菊齋 高峯 靑蓮

三賢文會宴’(국제 고봉 정려 삼현문화연)을 시제로 펼쳐졌다.

이후 심사를 통해 향시의 장원, 방안, 탐화가 선정됐다.

국가경영方略 부문에서는 김남주씨가, 향시 부문에서는 유안중씨가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장원으로 급제했다. 방안에는 유희현·정재호씨가, 탐화에는 정영태·최용호씨가 각각 선정됐다.

장원을 차지한 김남주(64)씨는 “평소 소학부터 명심보감 등 한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유학대학에 다니게 돼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 예절과 문화에 대해 잊고 살다가 이런 과거시험 재현행사에서 장원 급제하게 돼 뜻깊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복기자



조선시대에 관리를 등용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거시험 재현 행사가 지난 9일 광주향교에서 열렸다.

/김애리기자

광주 남구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장비 깔려 사망

광주 남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께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8)씨가 리프트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을 하던 A씨가 2m 위에 있는 리프트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주성학기자

광주 대촌중앙초, 지역 유일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국 11곳 선정...최대 4년 지원

광주 남구 대촌중앙초등학교가 지역 유일하게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신규 운영학교(15기)에 선정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고한 2023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신규 운영 학교에 대촌중앙초가 최종 선정돼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다.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은 전교생 400

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최대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8천만원~1억원의 보조금을 4년 간 교부받아 전문 예술강사 활용 수업, 교육 기자재 구입,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 11곳이 선정됐으며 대촌중앙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대촌중앙초는 ‘학교-예술단체 협력형’으로 선정돼 시각, 소리, 공연, 영상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대촌중앙초는 전통적으로 풍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해왔고, 이번 예술꽃 씨앗학교를 계기로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해보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다이지

창조클럽 아카데미 5기 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5기 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18 해질 19:47
🌙 달돋이 01:30 달짐 13:51

인천	18/24	서울	19/27	대전	19/29	광주	20/29	대구	20/29	부산	20/25		
춘천	17/28	강릉	16/24	전주	19/28	목포	19/26	제주	19/25	여수	20/25	독도	19/23

광주	구름많음	20/29
목포	구름많음	19/26
여수	구름많음	20/25
나주	구름많음	18/29
완도	구름많음	19/27
구례	구름많음	19/30
강진	구름많음	19/29
해남	구름많음	19/28
장성	구름많음	18/28
보성	흐림	18/28
순천	흐림	20/28
영광	구름많음	18/27
진도	구름많음	17/25
흑산도	구름많음	19/25
고흥	흐림	18/27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30 🚒 빨래 50 🚗 세차 50 🏃 운동 80
모자 챙기세요 실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준비운동은 충분히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먼바다(북)	0.5-1.0	0.5-1.0
남부 먼바다(남)	0.5-1.0	0.5-1.0
남해 앞바다	0.5-0.5	0.5-0.5
서부 먼바다(동)	0.5-1.5	0.5-1.0
서부 먼바다(서)	0.5-1.5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9:00	01:34
	21:36	14:29
여수	03:59	10:26
	16:44	22:37
녹동	04:46	11:33
	17:29	23:47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6월 13일(화)	☀ (18/28)	☁ (18/26)	☁ (18/25)	☀ (19/29)	☀ (18/26)
14일(수)	☁ (18/29)	☁ (18/27)	☁ (18/25)	☁ (18/29)	☀ (19/26)
15일(목)	☀ (18/29)	☁ (19/29)	☀ (18/26)	☀ (19/28)	☀ (19/25)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장애인 복지시설서 ‘자살 예방 교육·상담’

최혜영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에서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조사망률 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또한 같은 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

르면 장애인의 18%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자살 생각을 한 비율 또한 11%로 전체인구 4.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자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복기자